

- 2020년도 -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12. .

제출자 :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 2020년도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시정토록하고, 우수 시책에 있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상 확립.

## 2. 감사기간

- 2020. 11. 10.(화) ~ 11. 23.(월) / 14일간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분	대상기관 및 부서
위원회 선정기관 (5)	•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4)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	비고
연종석	송미애 윤남진 이상식 이상정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전문위원 박미경 주무관 김태임 주무관 이상훈 주무관 이송이 속기사 (2명/일)	

#### 5.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11.(수)	10:00	· 경제자유구역청	산경위원회 회의실
	14:00	· 경제통상국	“
11.12.(목)	10:00	· 충북신용보증재단	“
	14:00	· 농정국	“
11.13.(금) ~ 11.15.(일)	-	· 감사보충자료 수집	
11.16.(월)	10:00	· 농업기술원	산경위원회 회의실
	14:00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16:00	· 충북테크노파크	“
11.17.(화)	10:00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14:00	· 신성장산업국	“
11.18.(수) ~ 11.23.(월)	-	· 감사결과 종합검토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6. 주요감사 사항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도정시책 추진상황
- 예산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각종 도정시책사업
- 관계 법령·조례 등 관련 추진이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대집행기관 질문, 5분 자유발언 사후 추진상황
- 각종 민원 및 민원처리 사항
- 기타 현안문제 등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7. 감사결과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총 161건)

(단위 : 건)

구분	계	경제국	신성장 산업국	농정국	농업 기술원	경자청	기업 진흥원	신용보 증재단	테크노 파크	과 학 기 술 협 신원
시정 처리	161	24	21	31	17	15	20	10	12	11

### 【경제통상국】 - 24건

1. 2018~2019년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음. 사업추진에 대한 기간이 충분치 못하고, 최종 지원시점에서 사업목적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데에 이해를 하지만, 향후 사업 추진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2. 배달앱 예산이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지속 점검 할 것.
3. ‘충북벤처넷’ 이 포털사이트에서 ‘오창넷’ 으로도 표기가 되어 있음. 과거 오창넷과 관련된 내용이 사이트에 계속 표기 되어 있는 등 콘텐츠의 현행화가 미흡하고 관리가 부실함. ‘충북벤처넷’ 의 콘텐츠 현행화, 업데이트 등 미흡한 점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개선 할 것.
4. ‘충북경제 4% 실현 전망’ 이 2018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은 65.8조원으로 비중은 3.63% 경제성장률은 6.3%임.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5. ‘기업사랑농촌사랑 홍보’ 사업의 세부내역이 차이가 없는데 ‘19년과 ’ 20년 예산이 다른 이유가 TV광고 홍보기간 차이 때문이라고 하였음. 보고서 작성 시 예산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할 것.
6. ‘생산적 일손봉사’ 시군간 예산 배정 조정을 통하여 필요한 시군에 더 배정하는 등 예산배정에 신중을 기할 것.
7. ‘우수장수기업’ 선정 근거 및 선정기준이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조례가 명확치 않음. 걸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수장수기업 선정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도내 기업체 업력 등을 확인 하여 조례 제정 추진토록 할 것.
8. 「충청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에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에도 실태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2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실태 조사를 적극 실시 할 것.

9. 외국인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도내 기업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등 실태 조사와 외국인노동자 센터 등에 대한 민간 지원이 부족함.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모색할 것.
10. LS일렉트릭이 장기간 노사분규 상태임. 노사분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동향을 지속 파악하는 등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것.
11. ‘기능경기대회’가 뿌리산업 종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 할 것.
12. 투자기업의 중도포기가 줄고 있지 않으며, 협약도 발표 실적과 실투자 실적이 상이함. 협약 후 착공까지 3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됨. 협약 내용대로 잘 이행하여 중도 포기하는 기업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3. 현재 분양 가능한 산업용지가 33만평임. 중앙부처, 충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통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
14. 충북도 기술창업 비율이 전국 대비 2.41%로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낮은 비율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창업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기술창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
15. 경제기업과 산업디자인실을 팀 체제가 아닌 과 단위로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도내기업의 효율적인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확대 필요
16. 마을노무사(서울) 등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함. ‘21년도 예산 확보 통해 추진토록 할 것.

17.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제조업 일손 부족 현상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18.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낮음. 향후 임기 만료 등으로 위원 재위촉 시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이도록 할 것.
19. 산업단지보다 개별입지 입주업체가 높은 것은 문제가 있음. 투자유치 기업이 개별입지보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
20. 공장설립 시 우리도 기업의 참여도가 낮음.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을 강구 할 것.
21. 배달라이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관련 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22. ‘배달앱’에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받아 향후 도정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3. ‘경제정책 심의위원회’ 위원들 중 장기간 위촉된 위원은 현실성 있게 교체가 필요하다고 봄. 필요 불급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장기 위촉 위원들에 대한 교체를 고려할 것.
24. 충북도의 노동자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함. 특히 노동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하며, 도내 노동인권센터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것.

## 【신성장산업국】 - 21건

1. 신성장국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가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방사광가속기팀원이 현원으로 관리되고 있음. 인력충원(정원조정) 등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적절한 조정방안을 모색할 것.
2. 최근 전기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에서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수소충전소 확대 및 시군별, 지역별 보급 방안을 강구할 것.
3. 태양광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축사 지붕 등)에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태양광 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확보에 노력 할 것.
4. 방사광가속기 후속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 내년도 실시설계비 반영을 위해 과기부 등과 협력하여 예산 확보에 힘쓸 것.
5. 방사광가속기 유치 이후 청주지역 아파트 가격 과다 상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청주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과민한 반응으로 가속기 유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됨.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6. 일자리창출, 고급인력양성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함. 내년도 지원단 신설 준비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것.
7. 태양광 산업과 관련하여 전기에너지의 가격이 대폭 폭락하여 시장이 붕괴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됨. 폭락한 REC 발전단가에 대해 중앙부처 등에 건의 하는 등 태양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



8. 현재 생산되는 수소인 LNG 기반추출 수소는 CO<sub>2</sub>가 발생하는데 기술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수소산업 발전에 지속 노력 할 것.
9. 드론비행시험장을 기반으로 스마트복합교육센터 구축 등 관련업체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또한, 드론산업 지원조례에 명시되었듯이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드론산업을 신성장산업국 중심으로 드론산업 국산화 등 충북의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할 것.
10. 올해 드론산업관련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 코로나 등의 이유로 개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조속한 시일 내 가능한 개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할 것.
11. 신성장산업국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이 모두 40% 미만임. 위촉기간만료 등으로 인해 위원 재위촉 시 여성참여율을 높이도록 할 것.
12.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집행율이 낮음. 향후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 국비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할 것.
13.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보면 보은, 괴산 등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편임. 지역여건이 불리한 곳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급노력이 필요함.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시군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통해 도시가스에 준하는 가스공급이 우선 보급되도록 할 것.
14.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 후 5년간 지원됨. 사업기간이 끝난 후 사업 재선정 시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하여 도내 더 많은 대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할 것.

15. 뿌리기술 산업이 3D이미지로 젊은 층에서 취업을 꺼려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열악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 독자적 기술개발과 대규모 설비투자가 미흡하며, 환경 규제문제, 인력수급문제, 잘못된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
16. 방사광가속기 구축관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학과의 인력양성 방안 구체화, 참여기업 확대 및 리스트업 등 사전에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함. 관련 대학의 인력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지역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 할 것.
17.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집행율이 낮음. 향후 중기부 사업지원 계획에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18.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 겪던 소재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지원은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 및 국산화를 위해 잘 추진되었다고 봄. 그러나 아직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이 많음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 및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
19. 2018~2019년도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가 전액 반납되었음. 향후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의사결정이 합의되지 않는 등으로 사업비가 연속 반납된 것은 문제가 있음. 향후 대체 사업 발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20. 국도비 사업 반납내역 중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 반납액이 큼. 사업경제성 및 참여율 저조와 주민공동의견 불일치 사유를 파악해 보고 향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 할 것.

21. 2019년 세목별 불용액 예산 중 ‘월드 솔라 챌린지 청년희망 프로젝트 지원’ 사업비가 불용되었음. 사업신청한 대학교가 자체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사업대상자 선정 부터가 문제가 있음. 향후 타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대상자의 사업능력을 꼼꼼히 체크하고 지원할 것.

### 【농정국】 - 31건

1. 귀농귀촌인 유입은 충북발전과 인구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귀농귀촌인을 충북도로 유입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적극 발굴 할 것.
2. 식량기반의 안정적인 구축과 농지보호를 위하여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은 농지법 등 의제되는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무조건 제재는 어렵겠지만 신중을 기해 처리 할 것
3. 농시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과 차별성이 낮음. 농시 고유 목적에 맞게 농촌개발사업과 차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
4.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여 농축산업 인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법무부등에 건의가 필요함.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력 중개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인력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농식품부)에 지속 건의하기 바람. 농촌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논의나 계획 수립이 요구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또한 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시군별로 매년 1, 2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북도의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맞추어 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획기적으로 늘려 설치 할 것.

6. 무상급식 업무이관(청년담당관실→농정부서)과 함께 조직(팀)이 신설되어야 함. 조직부서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할 것.
7.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인 TF팀 구성이 요구됨. 청주시와 협의를 통하여 TF팀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
8. AI휴지기제 미 참여 농가에서 AI 발생 시 불이익은 필수임.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휴지기제 미참여 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제와 집중관리를 병행 할 것.
9.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했는데도 항체형성율이 낮아 과태료를 받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농가에서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백신접종 이후의 농가관리와 항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 할 것.
10. 농정국 전체예산 대비 반납예산 비율이 3%인데, 주요 반납사유가 사업포기, 낙찰차액 등임. '21년도에는 이러한 사유로 사업비 반납이 없도록 사업비 지원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반납예산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11. '조사료유통센터 공모사업'에 '16~ '17년도에 기반시설 부족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이후 공모사업에 적극 대비할 것.

1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잘하고 있음. 앞으로도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울타리 지원 사업 등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대책 세울 것.
13. 악취방지종합시책사업 중 생균제 지원 예산이 축산규모 확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축산업 규모 확대에 비례하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할 것.
14. 시군 경계부분의 농가들이 축사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함. 축사 시설 설치 시 악취저감 시설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
15.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관련 과태료 금액이 다름.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
16. ‘19년 ~ ‘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사업 중도포기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 대상자 선정에서 사업추진까지 신중을 기할 것.
17. 농정국의 정보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및 정보 전달 효과가 미흡함. 농업인단체 특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법에서의 정보전달을 위해 노력 할 것.
18.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움에 따른 농촌인력 수급방안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잠적 등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우 개선방안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
19.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방안으로 비자기간이 만료된 E-9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강구 할 것.

20. 반려동물 폐사체가 일반폐기물로 처리 되는 실정임. 최근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 정서와 문화를 적극 반영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가 필요함.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 검토할 것.
21.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개장 이후 가공공장(4개소)과 식당(6개소)을 운영 중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것.
2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2단계 추진사업으로 직판장과 유통시설 건립을 추진 중임. 거점단지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완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3. 민물고기아쿠아리움 건립 사업예산이 100억원인데 부족한 면이 있음. 100억 예산에 맞추어 규모 있고, 특색 있는 아쿠아리움이 될 수 있도록 타시도 시설을 벤치마킹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특별한 아쿠아리움이 건립되도록 잘 추진 할 것.
2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자들의 발급 카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시군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
25. 몇몇 타시도의 경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을 상향한 사례가 있음. 우리도도 지원금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 또한 현재 바우처카드 사용가능 업종이 29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부 마트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함. 이후 바우처카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종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

26. 공익직불제가 올해 시행되면서 신규농지 제한으로 새로 직불제를 신청하는 농지가 배제됨. 공익직불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농민들의 민원을 중앙에 건의하고 개선하는 등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27. 제천의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추진 시 제천지역 농업인들이 실제 재배하는 약용작물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지역의 약용작물 생산자단체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8. 임산부 꾸러미 사업 추진 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되 안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일반농산물이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29. 2015년 유기농엑스포가 충북과 괴산의 유기농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음. 2022년 유기농엑스포 추진 시 괴산과 충청도 전체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도내 유기농산업 활성화와 유기농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30.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서 혼합유박을 지원하고 있는 바, 수입 농산물이면서 GMO 문제가 있는 혼합유박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할 것.
31. 농작물 재해보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 【농업기술원】 - 17건

1. 올해 추진한 민간위탁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출한 곳은 곤충종자보급센터와 와인연구소인데, 다른 부서의 문제점도 진단이 필요함. 민간위탁 행사 후 자체평가,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은 다음 행사 추진 시 개선할 것.

2. 농업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 2년의 전문교육을 추진하는데,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육 인원 확대 방법을 모색할 것.
3.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관련 추진상황 및 지침개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4.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고순도 석회보르도액 효과를 검토하고, 농업인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수화상병 방제에 철저를 기할 것.
5.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과수화상병 매몰지 대체농작물 재배력 책자 발간 및 대체작목 지원 신기술 지원 사업 예산 확보 등 피해농가의 안정적 소득화를 위해 약용작물 등 고수익 작목을 농가에 보급토록 노력 할 것.
6. 여성·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특별지원책이 필요함. 여성·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특별지원 대책 방법을 찾도록 노력 할 것.
7. 곤충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량의 곤충종자를 보급하고 있음. 추후 보급된 종자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종자 보급에 반영 할 것.
8. 연구활동 강화를 통해 곤충사육 시 스마트 팜 도입 등 원격에서 사육농가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9. 벼 신품종의 농가 보급 현황이 대부분 중복부에 표시되어 있음. 남부지역 현황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파악하여 보급현황 표시를 지역별로 표시하도록 개선할 것.



10.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신문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떨어짐.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의 정보 전달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1. 충북의 청년농업인 대비 청년4H 회원의 비율이 ‘18년 21.5%에서 ’ 19년 22.5% 증가하여 증가율이 매우 미비함. 청년 4-H회원 비율 증가를 위한 신규농업인과의 정보 교류와 스마트팜 확대,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 할 것.
12. 최근 TV 프로에서 신품종인 갈색팽이 버섯으로 요리하는 것이 방영되어 좋은 평가를 얻은 것처럼 기술원에서 육성한 우수한 신품종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것.
13.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우리의 기후가 아열대화 되고 있음.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 품목에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4. 드론산업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청년농업인 드론방제 사업단 구성이 필요함. 청년농업인 드론방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국산이 아닌 국산개발 드론방제 활용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
15.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과 관련하여 남부 3군의 특성에 맞는 분원의 기능을 정립해야 함. 본원의 연구 인력을 쪼개기 식이 아닌 별도 인력을 확보하여 특화된 과수산업연구가 중심이 되도록 할 것.
16. 제천의 바이오첨단농업복지단지 추진에 맞추어 관련 생산자 단체와 관련기업과 협력하여 도내 약용작물 산업이 발전·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7. PLS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약제의 폭을 더 늘리도록 노력할 것.

### 【경제자유구역청】 - 15건

1.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대책이 현재까지 진척이 없음. 경자청과 이주민들과의 소통부재와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라 생각됨. 향후, 청장(본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민원을 청취하고 이주대책에 반영하여, 이주민들의 희생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전까지 마무리 하고 보고 할 것.
2. 경자청이 당초 계획과 달리, 외자유치 실적이 미흡한데 올해 계획된 사업 중에 코로나로 취소된 사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성과가 미흡함. 향후 분양 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경쟁적으로 움직일 것.
3. 오송바이오폴리스 분양률이 저조함. 아파트단지가 분양착공되지 않아 상업용지와 공공시설 설치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단지 분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유치에 힘쓸 것.
4.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지난해 경자구역 지정에서 제외되었는데, 1·2지구와 달리 안일하게 대처해 준비가 미흡했음. 향후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3지구가 경자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전년도 행감시 지적사항인 투자유치 예산이 올해에도 과하게 반납되었음. 계획된 예산이 반복되어 반납된다는 것은 경자청이 일을 안했다고 생각됨. ‘21년에는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짜고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

6. 경제특구 외자유치가 적는데, 외투지역 4개 지역에 MOU만 하고 사업의 진척이 없는 기업들이 있음. 특구지정 이후 실적이 저조한데, 운영상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실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
7. 경자청 홍보예산(홍보물품구입)이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는데 특정업체에 몰아주지는 않았는지 걱정됨. 어려운 시기인 만큼 홍보물품 구입 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분할계약을 할 것.
8. ‘18년 ~ ’ 19년도 투자유치 관련 국비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음. 경자청이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안했다고 판단됨. 향후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 반납액을 최소화 할 것.
9.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대책 관련, 1차 추진하던 원통리는 추진과정에서 법적절차가 잘못되었다 판단되며, 2차 구성리 또한 토지주와의 원만한 합의가 진척 없어 2년여 동안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음. 이주대책 무산이 예상되는데 이를 대비해 제2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10. K뷰티 스킨 타당성 조사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함. 국회 예결위 등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11. 코로나 장기화로 외자유치가 부실한데, 온라인 외자유치를 통해 성사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봄. 연말까지 계획된 분양계약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
12. 에어로폴리스 2지구 MOU체결 16개 기업 중, 최근 3년간 유치 기업이 11개 기업임.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기존 MOU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 할 것.

13. 투자유치예산(맞춤형, 전략적 투자예산) 집행잔액이 많으며 집행률이 13%밖에 안됨. 경자청에서 투자유치에 소홀했다 판단됨. 향후 적극행정으로 사업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경자청에 맞는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
14. 기업애로사항이 ‘20년도에 크게 증가하고 있음. 교통·생활 환경 분야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야함. 기업체 직원과 입주민 등이 버스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
15. 새로운 UAM사업은 시장성 있는 사업임. 타시도보다 먼저 선점 하는 것이 관건으로 관련업체와의 지속적인 사업 논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20건

1. 소관부서 등과 협의를 통하여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
2. 진흥원 예산중 불용액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음.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서 예산집행까지 철저를 기할 것.
3. 2001년 청사 준공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라 입주기관 등 시설·설비 개선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엘리베이터, 냉난방기 등 주요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 할 것.
4. 기업애로 상담 부스운영(8.16~8.18)관련 코로나가 확대되는 시기인데 화상상담회로 전환하여 잘 추진하였음. 코로나19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에도 기업애로 상담 부스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5.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원내용 중 지원기업 대부분 홍보물 제작부분만 지원하였음. 이사업의 취지가 전시회와 마케팅 부분을 동시 지원하는 것이므로 ‘21년도에는 기업이 희망하는 홍보물제작과 컨설팅지원 등 마케팅부분을 확대 지원할 것.
6. 홈쇼핑 판매지원, 온라인몰 입점지원 등 다양한 비대면 홍보 및 판매지원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음. 향후 인스타그램을 통한 제품홍보 및 판매사업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적합한 비대면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할 것.
7. ‘신성장산업 근무환경개선 사업’ 이 하반기부터 기업모집 및 운영에 있어 사업추진이 미비하였음.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조기 확보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8. 보은·제천시에서 여성층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날을 실시하였음. 향후 진흥원에서 계층별로 특화된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9.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의 환경개선과 다양한 제품 입점이 필요함. 향후 각 시군의 기업제품을 추천 받아 도내 우수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10. 2020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타기관 대비지적사항이 월등히 많음.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하고 향후에는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할 것.
11. 경영자립화 방안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비 절감, 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는 수지개선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임. 대행사업 수수료 현실화 및 인건비 절감 등 실제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12. 진흥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충족되지 못하였음. 2명 정도 더 채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충족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
13. 금년도 코로나자금 1,050억원 중 미소진 자금 150억에 대하여 12월까지 대출을 지속 실행하여 어려운 기업에게 시기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14. 2019년도 충북수출기업협회 구성운영 사업비가 협회구성이 안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음. 올해에는 충북기업인협회의 수출 통상위원회 분과구성 등 연말까지 운영을 철저히 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5. 박람회 운영 관련 업체선정 계약현황을 보면, 경쟁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 입찰비율이 높게 나타남. 향후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하여 더 많은 기업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16. ‘청년주간 행사’ 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행사를 개최하였고, 특히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행사참여도가 월등히 높았음. 향후에도 유튜브 등 다양한 비대면 행사 계획을 모색할 것.
17.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1차선정 4개 대학, 2차선정 2개 대학임. 도내 18개 대학에 대해 사업안내가 부족하였음. ‘21년도에는 사업공고 외에도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더 많은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사업홍보에 힘쓸 것.
18. 정규직 대비 계약직 직원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계약직 주요 업무가 일자리 지원임에도 계약직 신분으로서 고용불안과 잦은

퇴사자가 발생하였음. 기업지원 역량강화, 건전한 조직운영 등을 위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 할 것.

19. ‘18년에 이어 ’ 19년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예산 불용액이 과도함. ‘19년도 사업비 불용액이 많은 사유가 참여기업 직원의 중도퇴사라 했는데, 중도퇴사 발생을 고려하여 예비기업을 발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20. ‘국제화장품원료박람회 참가지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했는데, 화장품원료기업의 박람회지원 외의 다른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토록 할 것.

### 【충북신용보증재단】 - 10건

1.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보증지원을 계속하려면 기본재산을 늘려야 함. 더 많은 업체에 보증지원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자체 출연금 확보 방안을 모색 할 것.
2.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미 충족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충족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21년도에는 의무고용 인원 충족을 위해 장애인에 특화된 직무 개발 등 더욱 노력할 것.
3. 올해 재단 내 직원들 대상 4대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을 파악해 보고 내년도에도 직원들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할 것.
4. 채권회수 감소의 주요원인이 감면, 면책, 매각, 소각 등의 재기 지원 정책이 문제가 있음. 향후 재기지원 대상자 선정 시 재산, 소득, 고령 정도, 장애, 기초수급 등 종합적인 면을 검토하여 신중을 기할 것.

5. 반부패·청렴시책 관련 직원교육 및 청렴캠페인 등을 추진하였는데, 내년도에는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노력 할 것.
6.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업체별 보증지원한도는 존재하나 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지원한도 상향을 위한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
7. 코로나 지속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만기도래 업체에 대한 선별적인 상환을 유도 하는 등 선제적 부실대응 해소 방안을 모색 할 것.
8. 도내 시군에 지점 확대가 필요함. 정원이나 예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군 전체로 지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할 것.
9. 코로나 19 지속으로 비대면 등 체질개선이 필요함. 무방문 신용보증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 할 것.
10. 소상공인의 보증지원과 관련하여 컨설팅(교육)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도 교육수혜자가 확대되도록 노력 할 것.

### 【충북테크노파크】 - 12건

1. 한방천연물 산업 관련 단순 기업 지원 외에 약용작물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필요함. 도와 제천시, 유관기관, 농가,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연계로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
2. 수소경제는 정부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고 전면적으로 그린 뉴딜 관련 사업 진행 중인데 수소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CO2 문제 해결을 위해 암모니아 기술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 할 것.



3. 미화, 청소 등 파견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해결해야 될 숙제임. 몇몇 타 TP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임. 충북TP도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할 것.
4.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태양광산업이 현재 시장 괴멸 수준임. 심각한 상황인데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해도 시장이 못 받아들임. 태양광 시장이 중국산 저가 부품들로 힘든 상황이므로 시장 회복을 위해 테크노파크가 기술개발에 적극 노력 할 것.
5. 코로나 관련 임대수수료 감면, 건물 감가상각 등의 영향으로 20억 당기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님.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 개선할 것.
6. TP 조직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음. 인력 충원을 하다보면 합격한 인원들이 타 기관으로 빠져나가고 지원자들의 자격 미달 등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나 재공고 등 지속적인 충원 계획을 세워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
7. 솔라페스티벌 행사가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었음. '21년도에는 도내 솔라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택트 장비를 활용해 마케팅, 시설, 장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
8. 입주기업 매출액 중 한방천연물센터 입주업체 실적이 매우 저조함. 이는 인큐베이팅에 소홀했다고 여겨짐. 향후 입주업체에 대한 종합 진단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입주업체를 관리할 것.

9. 장비활용현황에서 장비 대수와 활용시간은 증가했는데 이용 건수와 실제 활용시간 감소하였음. 재단 장비중 노후된 장비가 많아 실제 사용이 제한되는 장비들이 누적된 것이 그 이유인데 중기부등과 지속 협의하여 노후장비 대체 구입 예산을 확보 할 것.
10. 시군별 지원실적을 보면 제천시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증가했으나 지원 건수는 감소하였음. 기초연구를 위한 일반적인 분석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의 연구가 끝나고 상업화로 넘어가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것.
11. 진천 태양광모듈연구센터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동영상 등의 홍보를 확대하고 한전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설비 무료설치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할 것.
12.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완료되었다 했는데, 보훈 인력이 채용되었다가 바로 타기관으로 유출된 사례가 있음. 향후에도 의무고용을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 할 것.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11건

1. 기관의 규모 확대, 예산확보와 더불어 가중된 업무로 인한 직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및 직원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
2. ‘SW품질역량강화사업’ 관련 인증지원비, 인건비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지역 기업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할 것.

3. '19년 행감 지적사항 중 'SW미래채움사업' 이 교육청사업과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비함. 추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4.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 예산액 대비 지원신청자가 많아 조기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음. 지원자 선정방식 등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고 중복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
5. SW융합클러스터2.0,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추진 일정이 11월에 집중되어 있음. 대부분의 사업비는 분석인프라 장비에 투입되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 등에 철저를 기할 것.
6.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소부장 산업 육성이 대두됨. 올해 첫 추진되는 소부장 및 자동차 지원 사업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
7. 수출기업 통번역, 지역특화사업(수송기계) 등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할 것.
8. 'SW미래채움사업' 강사 및 참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등 주관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SW강사의 자립화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
9. '블록체인진흥센터' 를 통한 성과가 도출되어야 하는 시점임. 정부예산 확보 및 블록체인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할 것.

10. 인공지능, 빅데이터, VR·AR, 소부장 등 미래첨단산업 관련 업무 추진으로 과학기술혁신 기반을 마련할 것.
11. 혁신원내 조직 및 인력관리 등을 활용, 직원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 감사기능 수행조직을 설치 할 것.